

목회자 칼럼

정형기 목사 // 교단 재편위원장 역임, 즐거우리집요양원 이사장, 자유통일호국동지회 대표회장

#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제가 존경하는 기도 많이 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4월 25일부터 6월 말 안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오늘도 다른 날과 같이 회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 꿈에 내가 잘 깨닫지 못하니 꿈으로 보여 주시는데 제가 성도가 없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목사나 교회는 성도가 없다고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앞에서 수천 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주의 종들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하고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들, 특별히 WCC 부산총회에 참여하여 혼란을 부추긴 사람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에 가입된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10차 부산총회 1800명의 명단을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고 고백했지만 알지 못하는 죄까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은혜와 진리교회(현교회장 조용목 목사) 출석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WCC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있었던 제7차 총회 정형기 교수의 초헌제에 관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신학대학 교수인 그는 기독교로 시작해서 지성적 무당으로 변질된 종교 혼합주의(자무당)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마 5: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최소한 우리 신앙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한

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금식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척, 선한 척, 기복한 척, 술, 담배하며 온갖 세상연락을 즐기면서도 잘 믿는 척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막말 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마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리카리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즘 청소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막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집사, 장로도 심한 욕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말씀대로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난다고 흉내도 내기 민망한 막말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신앙의 관이 막말 욕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이혼하지 말아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 19:6)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나니라"고 하신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 하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몰랐을 때는 이혼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을 알수록 나와 멀리 떨어지게 되고 천국을 알수록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4.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그리고 몇 개월 전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퍼져서 한국교회가 문을 닫아가지 하는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1938년 9월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사에 절하지 않고 주님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션스쿨이나 교회가 신사 참배를 강요당하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항거했는데 장로교 제27차 총회에서 목사 장로 선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지만 몇몇 지도자들이 일제의 박해가 너

무심하니 지금 신사에 절하고 나중에 회개하지고 한 것입니다. 모두 가결했지만 끝까지 반대한 주기철 목사 외 다수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 3:5)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WCC에 힘을 보태는 교회들로 인해 왜 무당 우상전지에 참여할까 저 스스로 혼란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1945년 이후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한국교회 분이 닫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의 사태로 표현한다면 1919년 3·1운동, 1988년 일제강점기의 신사 참배, 1945년 해방과 1950년 6.25사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국교회 폐쇄, 영상예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폐쇄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랑 하셔서 징계의 책자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 할 기회 주심을 감사하고 통회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다가올 재난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해결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염병의 재앙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에 대한 종합론적 가르침으로 이해하면서 신앙이 오실 것에 대비해 깨어 있어 기를 준비한 자해로운 5명의 신부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 남미 선교사로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한국만큼 기도 많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사를 국가 단위로 제일 많이 보낸 나라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나라로 세워주시길 것입니다.

어쩌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 거꾸로미디어연구&헤이븐 기독교학교, 온라인 수련회 개최

코로나19 극복 위한 온라인 수련회 300명 참여



미래교육을 연구하는 거꾸로미디어연구소(소장 박병기, 워싱턴 교구)와 중형 대안학교인 헤이븐 기독교학교(교장 피터 윤)가 진행한 온라인 수련회가 열렸다. 두 기관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화상채팅 톨인 줌(Zoom)을 사용한 수련회를 진행했다. 이틀 동안 참여 인원은 약 300명이다. 첫날 초등학생 수련회로 110명이 참여했고 둘째날 중학생 수련회로 185명이 참여했다.

헤이븐 기독교학교의 이지영 교감은 "거꾸로미디어 연구소 박병기 소장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 강의로 수련회가 시작했는데, 놀라게도 전교생이 집

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2시간 강연이 끝난 후 춤과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워싱 헬렌지, 보물을 찾아라' 등의 알찬 온라인 수련회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학생들과 부모님들로부터 감사의 글들이 전해지며 사상 첫 온라인 수련회를 즐겁게 마칠 수 있었다. '온라인 수련회'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련회 분위기를 한껏 내기 위해 전교생들에게 푸진한 과자와 음료수 세트를 새벽 배송으로 보냈다"며 수련회를 진행할 때 필요한 팁을 덧붙혔다.

# 한국교회는 늘 위기상황에서 극복 앞장 서

한국교회건강연구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 모색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건강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신크랭크가 주관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4월 24일(금)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두상달 장로의 기도로 시작한 이날 간담회는 동 연구원 이효상 원장의 사회로 두상달 장로의 기도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신앙사이에서의 고뇌 코로나 집단 감염을 빚은 이단, 사이버와 동일시되는 공교회성 문제 △136년 역사에서 배중단의 문제 △일방적 예배 중단이라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 보도 자체의 문제 △회중 없는 예배, 정당한 예배로 볼 것인가 △415총선 평가와 목회자와 교회의 정치참여 세력화 문제 △김정은 사태와 북한교회와 교류 협력의 문제 △미디어 사역과 안간간자는 어떻게 볼 것인가 △디우세대를 향한 전략적 접근 과 대안 모색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패널들이 코로나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 "코로나는 000이다"는 주제에서 예방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사예교회)와 기독교성경교단 부총회장 한기재 목사(중앙성경교회)는 "코로나는 기회다"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코로나는 분명한 위기지만 잘 사용하면 한국교회는 분명 다시 비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는 우리 역사의 분기점이다"라는

정성진 목사의 정의를 포함, 생명, 하나님의 체적, 은혜, 하나님의 순결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주제발표에서 소강석 목사는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환경의 변화를 지적, 다시 교회를 세우는 운동(러치 플랜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순환적 차원에서 교회세움 △포지션 영역에서 교회세움 △생태적 차원에서 교회세움 △디우세대 차원에서의 교회세움 등 네가지 영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교회연문화 유산서 대표(수원명성교회)는 "교회가 '예배중단', '온라인예배', '유튜브예배'라는 말은 충격"이었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일부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또 다른 이들은 신앙적 영역을 지키기 위한 목회자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교회나 예배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의 존립근거를 잃는다."라고 경고했다. 또 방역수칙을 지키는 예배를 '예배강행'이라고 보도한 공중파 언론 방송태도를 지적했다.

예장통합교단 전 서기 김의식 목사(지유하는 교회)는 "이단이나 사이버로 인한 질병확산을 단지 '교회'라는 이름만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매도당하는 현실에서, 교회가 하나되어 교회의 교회다움과 공교회성을 유지해야 국민인식 개선이나 대사회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재 목사는 "코로나19사태 이후 한국교회

어찌 보면 중차대한 기도와 시합대에서 있다."라며, "진정한 예배"라는 예배형태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고 있고, 내적으로는 진실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라며, "기독교의 확장성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415총선과 관련하여 "승리자는 공홍의 덕목을 지녀야 하고 힘은 균형보다 힘의 질, 심금이 더 중요하다"고 정치권에 일침을 놓았다.

사회자 이효상 원장은 질문지를 통해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예배중단'을 감행한 이번 경우, 한국기독교 136년의 역사에서 예배중단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예배중단'에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라고 공명했다.

코로나20 정성진 이사장은 "기독교의 정치세력화에 반대하며,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가치의 구현을 통해 심금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훈삼 목사(성남주인교회)는 "극단적 기독교정치 세력을 차단하도록 교회가 선을 그어야 한다."며, "세상이나 사회에서 그 세력을 기독교로 보기 때문에 이미지가 쇠신이 안 되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분단된 현실에서 교회가 민족 간 화해와 평화의 기교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북한 관련 문제로

# 신간 안내

거듭남, 천국가는 길



백인의 선교사가 쓰고 번역한 1893년 한국 초대교회의 전도지, 우리나라에 전해진 최초의 복음과 기독교 교리는 무엇이었을까?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부흥 역사를 일으킨 초창기 복음 전도지, 중생지도(거듭남의 도와 성교찰리(기독교 기본전리)는 중국선교를 위해 파송 받은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그리피스 존)가 저술한 것입니다. 마포삼열(Samuel A. Moffet, 1864-1939) 선교사가 1893년 한글로 번역하여 한국 초대교회에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된 전도 책자입니다. 이 중생지도와 성교찰리를 통해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진리와 바른 교리가 전해졌음을 알리며, 성령의 세례를 하시는 역사를 통해 진정한 구원 백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자 : 그리피스 존, 마포삼열, 박형철 편저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0-04-20 | (128\*188)mm 112p | 판매가 : 8,000원

바보 엄마



엄마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과 격리되어 쫓겨나는 고통에 머무는 일이다. 아기의 울음을 좇아가는 것은 매달 매달 계속되는 낯선 초행길이기 때문이다. 고달프고 삶은 외롭고 마음은 확신 없이 두렵다. 그래서 책을 읽고 키패에 묻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혼자 울다가 아이에게 하네다가 남편에게 짜증낸다. 출산 이전의 경력이 어더하든, 엄마가 된다는 것은 나의 무력함과 끊임없이 대면하는 일이다. 그런 육아의 여정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육아의 '꿀방'에 하나님을 초청하라고 권면하고 싶다. 이 책은 무력하고 약한 바보 엄마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앞도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려고 애쓸 때 하나님과의 합동 육아 작전이 얼마나 멋지고 신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저자 : 권미나 | 출판사 : 규장 | 행일 : 2020-04-27 | (140\*205)mm 248p | 판매가 : 13,000원

부모가 자녀에게 꼭 남겨주어야 하는 그것



"우물쭈물 대다가 자녀의 소중한 어린 시절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녀를 잘 키우면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고, 빠르게 잘 성장한 자녀는 부모에게 면류관이 된다. 그러나 자녀를 잘못 키우면 어린 자녀는 골칫거리가 되고, 장성한 자녀는 부모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다. 자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잘 다루면 큰 축복이지만 잘못 다루면 인생 전체를 고통으로 만든다. 많은 부모가 자신의 삶은 그러저대로 잘 살았는데 자녀를 잘못 양육해서 인생 후반을 지옥처럼 산다. 어쩌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일지 모른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려고 하는가? 저자 : 김원태 | 출판사 : 도서출판 브니엘 발행일 : 2020-05-06 | (150\*210)mm 184p | 판매가 : 10,000원

김지연 약사 저서 세트(전2권)



국내와 해외 2,500개가 넘는 교회와 학교와 기관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적 성가치관 강사인 김지연 약사가 쓴 책이다. 교과와 진영을 초월하여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강단을 내려 주기까지 안심하고 신뢰하는 검증된 시역자다. 시중에 비성경적이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성교육 책이 난무한 출판 현실에서 이 책은 믿을 수 있는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다. 지금 세상은 차세대 생명이 걸려 있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 문화, 법과 제도 등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문제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선악을 구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 주었는데 이러한 창조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저자 : 김지연 | 출판사 : 갓피플 | 판매가 : 37,000원



이슈가 집중되는 때에 세계복합연구센터 안전일 소장은 코로나 사태로 국경차단, 북한군인의 영양실조, 감정은 사태의 충격 가짜뉴스 등을 언급하였다.

고려대 의대원장을 역임한 엄정섭 박사는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의 습격'이라고 밝히고, 코로나 현상에 대해 '앞으로 변종 바이러스의 습격이 4년 주기로 반복해서 올 수 있다'라며, 의학계 관점에서 설명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웨미연구원 설립주 목사(대전약수교회)는 "현재 청소년은 전도 2%대는 미종족 전도전도에 해당되는 정도인데, 부모들과 목회자들이 나서야 한다. 오늘날의 다음세대, 청소년들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자녀와 대화하고 소통하므로 복음으로 늘 수 있는 '명석', 즉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기왕이면 창조적으로 같은 세대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실대 전 총장 한현수 박사는 "한국교회와 국가를 이룰 시대정신을 제시하지 못했고, 회화와 일치,

봉사와 나눔 등 기독교정신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진단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 다양한 NGO 등 한국교회와 대안을 연구하는 전문가 브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싱크탱크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코로나20 정성진 이사장은 "이런 때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활용 수밖에 없다."라며, "모이는 예배의 본질도 지키는 '드라이브-인' 위상과 온라인 활용 등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는 늘 위기상황에서 앞장서서 고통을 분담하고 이겨내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두상달 장로는 "가상세계 사이버상의 교회는 현실교회의 존재를 잃게 만들었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신앙과 공동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 연구원은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건강'을 지키며,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대안 모색에 주력할 예정이다.